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박 세 리〉



〈김 미 현〉



〈이 지 영〉



〈안 켈라 박〉

박세리·신지애 등 '한국 자매' 21명

매치플레이 여왕 도전

LPGA 여자월드챔피언십 내일 개막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세 차례 우승을 함직한 '코리안 시스템'이 우승 상금 50만달러의 매치플레이 여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뉴욕주 뉴로셀의 와이카골프장(파71.6천237야드)에서 열릴 HSBC여자월드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모두 21명이 이른다.

2005년 창설된 이 대회는 LPGA 투어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총상금 200만달러로 4강에 올라도 웬만한 투어대회 우승 상금과 맞먹는 15만달러의 거금이 주어지는 특급 대회이다.

세계랭킹 30위 이내, 상금랭킹 30위 이내에 든 64명만 출전할 수 있다.

박세리(30.CJ), 김미현(30.KTF), 신지애(19.하이마트), 장정(27.기업은행), 이지영(22.하이마트), 안젤라 박(19), 이선화(21.CJ), 이정연(28) 등이 세계랭킹 30위 이내에 들어 출전하고 김영(27), 김인경(19), 배경은(22.CJ), 안시현(23), 민나온(19), 최혜정(23.카스코), 이미나(26.KTF), 감지민(27.CJ), 김초롱(23), 김주연(26), 정일미(35.기가골프), 박인비(19), 김주미(23.하이트) 등이 상금랭킹으로 초청장을 받아 전체 출전 선수 64명 가운데 32.8%를 차지한다. 한국 선수들은 매치플레이에 익숙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벌써 이 대회만 세번째 출전하는 선수들이 수도룩하고 미국

에서 주니어 시절을 보낸 선수들은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안아왔다.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지난해 렉서스컵에서 한국 선수들은 줄줄이 승진고를 올린 사실도 경기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반증이다.

매치플레이는 '장타력+달력'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장타력은 다음 샷을 손쉽게 이끌어가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1대1 대결에서 상대방의 기를 꺾는 무기로 작용한다. 지난해 우승자 브리타니 린시킴(미국)은 4강전에서 만난 위성미(18.미국이클 미셀 위)보다 20야드나 더 나가는 장타로 기를 죽였다.

장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경이다. 샷보다 승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대 선수와 기싸움이기 때문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장타력과 달력을 동시에 갖춘 박세리가 꼽힌다.

슬럼프에 허덕일 때 출전했던 2005년과 작년 대회에서는 1회전 탈락과 16강전 패전 등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13개월만의 투어 대회 우승으로 전성기 때 기량과 자신감을 되찾은 박세리는 2주 연속 우승도 기대할 만 하다.

장타력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지영과 짜릿짜릿한 승부를 오히려 즐긴다는 신지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티샷 거리가 짧아 두번째샷을 상대 선수보다 먼저 치게 되지만 핀에 바짝 붙이는 정교한 페어웨이 우드샷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김미현과 이미나도 눈여겨볼 선수이다. 이번이 속출하는 매치플레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인경, 민나온, 안젤라 박 등 '겉없는 신예'들의 반란도 예상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신 지 애〉



〈박 인 비〉



〈장 정〉



〈배 경 은〉

■ 브리티시오픈 골프 오늘 개막

“최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

美 SI지 보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 트레이티드(SI)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개막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8일 인터넷 관에 ‘7명의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 후보’ 예상 기사를 실었는데 이 중 1명이 최경주가 브리티시 오픈 정상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골프 매거진의 카메론 모피트 기자는 “최경주는 내가 보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의 드라이브샷은 놀랄 만큼 직선으로 뻗어나간다”면서 “그는 최근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한 번 리드

를 잡으면 더욱 무서울 것이 없는 선수”라고 평하며 최경주의 첫 메이저 왕좌 등극을 점쳤다.

모피트 기자는 또 “흔히 우승 후보로 꼽는 우즈나 미켈슨의 최근 모습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SI는 전날 10명의 우승 후보를 자체적으로 예상한 기사에서도 최경주를 3위에 올려놓은 데 이어 이날도 최경주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다른 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2명은 필 미켈슨(미국)의 우승을 예상했고 나머지 3명은 짐 퓨릭, 데이비스 러브 3세(이상 미국),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양 헬 카베라(아르헨티나)에게 한 표씩 돌아갔다.

대회 3연속 우승을 노리는 타이거 우즈(미국)를 꼽은 전문가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최경주(오른쪽)가 18일 열린 브리티시오픈 골프 연습라운드 도중 후배선수인 이승호의 스윙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내일부터 프로야구 하반기 돌입

KIA 탈꼴찌 최대 관심 4위 자리다툼 치열할듯

나흘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2007 프로야구가 20일부터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야구 팬들의 흥미 고조를 위해 사상 최초로 상금 2억원이 걸린 북중(伏中) 서머리그가 개막된 데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각 팀의 사활을 건 승부가 점점 치달으면서 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최대 화두는 1강 6중1약의 구도로 재편된 판도에서 '4강 팀'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 것인가다.

또한 7위 롯데와 5.5경기로 벌어져 최하위로 추락한 야구명가 KIA가 서머리그에 전력을 다해 명가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 꼴찌탈출을 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다.

7연승, 11연승 행진을 내달리며 전반기 내내 고공 비행을 거듭한 선두 SK는 46승5무30패로 승패 차 '+16'을 기록하며 사실상 가을 축제 참가를 예약했다.

SK에 4게임 뒤진 2위 두산부터 7위 롯데까지는 연승과 연패에 따라 전반기 초반처럼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위 LG부터 7위 롯데까지 승차 4경기 안팎에서 4팀이 난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 최대 관전포인트는 4위 싸움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운드를 풀가동하는 '벌떼 야구'로 팀 방어율 1위(3.31)의 막강 요새를 구축한 SK는 김성근 감독의 목표인 승패 차 '+20'을 향해 후반기에도 채찍질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프스 구비구비 은륜 행렬

18일 알프스산맥 마지막 구간인 프랑스 발디세레-브리양송 구간에서 펼쳐진 제94회 2007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투르 드 프랑스) 대회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박태환 일본 전훈

다음달 21일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2007 일본국제수영대회)을 앞두고 있는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고·사진)이 지난 3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실패한 자유형 1,500m에서 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박태환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지구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에 열중했다. 이번에는 1,500m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베이징올림픽을 1년 정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다른 좋은 선수들도 많이 출전한다. 그들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주종목인 자유형 400m와 1,500m에 출전하는데 400m에서는 호주의 장거리영웅 그랜트 헤켓과 또 충돌한다.

1,500m에서는 헤켓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마테우츠 소리모비츠(폴란드)도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출범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종목별 단체 지원을 위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정식 출범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8일 창립총회 이사회를 갖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삼일 부회장에 이길도(주)미주개발공사 회장, 부회장에 정병문 시 장애인총연합회장, 박종운(주)우일건설 회장을, 사무처장에 문상일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종목을 지원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별 생활체육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정주(주)나영산업 대표이사 ▲김공룡 장애인선수협회의

회장 ▲김인천(주)인천상사 대표이사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신대현 장애인선수(역도) ▲양희창(주)동호 회장 ▲위갈한 시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경태 장애인선수(문물) ▲이여성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이재홍 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이희옥 광주도시공사 사장 ▲장기원 호암실업 대표 ▲전학철 시체육회 사무처장 ▲정명수 조선대 체육대학장 ▲정인국 광주선명학교장 ▲조규정 호남대 생활체육과 교수 ▲조호권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병량 시교육청 교육국장 ▲함동주(주)모아산업 대표이사를 이사로 위촉했다.

감사에는 박권선 공인회계사와 서종환 시체육지위과장이 선임됐다. /최재호기자 lion@